

지체의 말씀

불기 2562년 11월 / 통권 453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증도가)

우 유 정 좌 야 승 가

優遊靜坐野僧家여

격 적 한 거 실 소 쇠

閑寂閑居實蕭灑라

한가히 노닐고 고요히 정진하는 시골의 스님

고요하고 한가로이 머무니 참으로 말끔하구나.

각 즉 요 불 시 공

覺卽了不施功이니

일 체 유 위 법 부 동

一切有爲法不同이라.

깨달으면 그뿐 다시 애를 쓰지 않나니

모든 유위법과는 같지 않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눈 / 운성스님

불교상식 · 7

2. 불교의 신행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3

대광사 11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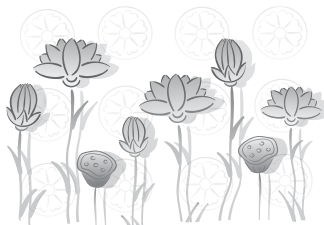
어린이법회 11월 활동

제18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표지그림 / 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Tel. 055) 602-6267





눈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어린 시절의 나를 한참이나 가르치셨던 한 어른께서 무심히 던지신 말씀 중에 아직도 귀를 생생하게 적시고 있는 한마디가 있다.

“눈이라고 달고 있다고 다 눈인 줄 아느냐?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은 지혜로운 이의 발바닥 티눈만도 못하다.”

“발바닥에 티눈만도 못하다니? 아무리 글 보는 눈이 당신 수준에 못 미친다 해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른이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지만 어린 마음에 충격이 깊었다. 그 후로 책보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여 그 습관이 오늘에까지 즐기치게 이어지게 된 걸 보면 말이다.

우리 속담에 “눈 뜬 장님”이란 말도 있다.

단지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 눈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다. 사물을 보고 옳고 그름을 따져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바르게 구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신체 감각 중 가장 비중 큰 것이 눈이라고 한다. 신체 정보의 무려 70%를 눈에 의지한다고 한다. 귀, 코, 혀, 손, 발, 피부 등 여러 신체 정보기관이 있는데 그 중 70%를 눈이 감당한다니 매우 놀라운 비중이다.

신체 각 기관의 모든 정보는 마음에 전달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그중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했지 않았나 싶다. 눈은 그만큼 마음을 좌우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세상을 느끼는 절대 기관이다.

여래께서 이르시길 “보기도 정확해야 하지만 본 것에 대한 올바른 지각을 낼 수 있어야 하며 지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이어져야 하고 편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등한 부처의 안목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부처는 무엇을 마주하여 사유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했다. 옳고 바른 지각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사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사유가 필요치 않은 안목이 부처의 안목인 것이다.

업에 의해 세상에 오게 된 우리는 ‘업’에 의해 시각이 형성되고, 업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업’을 이어 줄기차게 내일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한다. 하염없이 업의 굴레를 돌리고 돌리며 잇고 이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의 안목은 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지향하고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평등한 지혜를 지향한다. 부처를 이루면 다시는 업에 얽혀 고탈을 부침하는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업에 얽매이지 않는 해탈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의 안목이다.

젊은 시절엔 아주 작은 글씨도 잘 볼 수 있는 눈을 저마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흐려지고 불편해진다. 업에 의한 눈이라서 예정된 시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어린 시절의 눈은 밝기도 매우 밝았지만 사진 찍듯 사물을 머리에 저장하여 기억의 창고를 든든하게 했었다. 한번 본 것은 사진 같이 기억하고 한번 간 길은 선명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아득한 이야기가 되었다. 사진은 고사하고 금방 본 것도 기억나지 않는 허망한 눈이 되었다.

그렇게 업을 따라 허물어지는 늙고 병드는 눈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부처의 혜안을 어서 갖추어야 할 텐데 어찌랴? 언제 더 허물어져 식별 기능을 잃게 될지 모르는 육신의 눈에 의지하지 말고 부지런히 여래의 혜안을 닦아 다음생을 대비해야 하는데 말이다.

다음 생에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맑고 지혜로운 부처의 눈이 삶을 주도하게 되기를 기도하여 오늘도 아미타경 읽으며 아미타를 염송하며 다음 생 덕을 닦고 있긴 하지만, 다음 생이 오기 전에 깨달음의 초월적 시각을 갖추게 될지 걱정이다.

매양 눈물 안약 지니고 다니며 걸핏하면 일어나는 건조증상에 노상 수분 공급해야 하는 부실한 눈을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해선 안 된다. 지금의 업보를 말끔히 씻어내지 않고 밝은 다음 생을 기대할 수는 없다.



2 불교의 신행

1) 삼보에 대한 믿음

일상적인 삶을 살다 불교에 입문하려고 첫 마음을 냈다면,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야 한다. 참다운 불자가 되려면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三寶)에 귀의하여야 한다.

삼보란 세 가지 보배라는 말로, 부처님(佛)과 부처님의 가르침(法)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스님들(僧)을 말한다. 신명을 바쳐 이 삼보를 믿는 것을 삼귀의(三歸依)라고 한다. 귀의란 피난처(saranam)로 가서 의지한다는 말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버리고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안주하여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 피난처가 바로 삼보이다.

고통과 번민으로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를 만한 영원한 의지처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 오랫동안 의지할 수 있는 편안하고 평온한 장소를 얻는다. 그곳은 우리가 머무를 아늑한 섬으로 안전과 휴식과 행복을 보장한다.

삼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금방 부서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불안한 것들이기에 귀의의 대상이 못된다. 삼보는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도 최종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구실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삼보를 믿고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을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삼보를 믿음으로써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길



로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진리를 깨쳐 우리에게 보여 주신 따뜻하고 인격적인 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한 온화하고 대자대비한 부처님을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섬으로 여기고 귀의하여 흔들림 없는 마음의 확신과 안정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 진리 그 자체인 법에 귀의하는 것이 법귀의이다.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법에 따라 수행하고 가르치는 수행공동체와 스님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즉 좋은 벗과 복밭인 거룩한 스승에게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삼귀의는 부처님 재세시에도 기쁨에 넘치는 신앙고백이었고, 지금은 모든 불교의식 때 빠짐없이 행하는 의례가 되었다. 초기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나 삼귀의 삼창(三唱)을 통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키심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심과 같이,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리키심과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와서 눈 있는 이는 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세존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설하여 밝히셨나이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마칠 때까지 세존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숫타니빠타』 「제 1 사품(蛇品)」

이토록 끊어 오르는 환희로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들은 목숨이 다할때까지 깊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를 공경하여야 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토록 끊어 오르는 환희로 부처님께 귀의한 불자들은 목숨



이 다할때까지 깊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를 공격하여야 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사람 없는 광야를 갈 때에는 여러 가지 공포를 느낄 것이며,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두서리라. 그런 때는 마땅히 여래(如來)를 염하라. 부처님은 응공(應供), 등정각(等正覺), 불(佛)·세존(世尊)이시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마땅히 법(法)을 염하라.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은 현재에 당장 효능이 있는 것,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능히 안온하게 만들어 주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마땅히 법(法)을 염하라.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은 현재에 당장 효능이 있는 것, 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 능히 안온하게 만들어 주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또 승(僧)을 염하라. 부처님 제자들은 잘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하고, 세간의 복전(福田)이라고... 이리 염하면 공포가 사라지리라.

『잡아함경』 「베35구녀 비사리고객(毘私利賈客)」

삼보에 대한 귀의는 이렇게 평화와 안온함을 느끼게 한다. 불교를 믿기로 결심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발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정진해 나가는 일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태하지 말고 바르게 신행해야 한다. 이것이 발심(發心), 즉 발보리심(發菩提心)의 참다운 모습이다.



첫 번째 말씀(숫타니파타)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2. 아마간다의 경

1. [뗏짜] “야생 수수, 풀씨, 야생 고산지대의 콩, 잎의 열매, 뿌리의 열매, 넝쿨 열매, 선한 법으로 얻어진 것을 먹으면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 잘 준비되고 훌륭하게 요리된 것, 다른 사람이 주거나 선물한 맛 있는 것, 쌀밥과 같은 음식을 즐긴다면, 오 깟싸빠여, 그는 비린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3. 하느님의 친척인 그대는 새의 고기를 훌륭하게 요리해서 함께 쌀밥을 즐기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깟싸빠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건대 ‘그대가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4. [붓다 깟싸빠] “살생하고, 학대하고, 자르고, 묶는 일, 도둑질, 거짓말, 사기와 속이는 일, 가치 없는 공부,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은 아닙니다.

5.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자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것과 어울리며, 허무하다는 견해를 갖고, 바르지



못하고, 교화하기 어려우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6. 거칠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7. 성내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속이고, 질투하고, 호언장담하고, 극히 오만하고, 사악한 자들을 가까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8. 악행을 일삼고, 빛을 갠지 않고, 중상하며,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정의를 가장하며, 이 세상에서 죄과를 범하며 비천하게 행하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9.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에 자제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 하고, 계행을 지키지 않고, 잔인하고, 거칠고, 무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10. 사람들이 못 삶들에게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그런 일에 바쁘고, 죽어서는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이야말로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닙니다.

11.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하는 것이나,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상투를 틀거나, 먼지를 뒤집어쓰거나, 거친 사슴 가죽을 걸치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를 얻기 위



해 행하는 많은 종류의 고행, 진언을 외우거나, 헌공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수련도 모두 의혹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을 청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12.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고, 감각을 제어하며 유행하 십시오. 진리에 입각해서 바르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뛰어 넘어서 모든 고통을 버려버린 현명한 님은 보이고 들리는 것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13. [송출자] “이처럼 그 뜻을 세존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으니, 지혜 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비린 것을 떠나 걸림 이 없이 우리를 이끄는 해탈하신 님께서는 여러 시귀로써 설하셨습니다.

14. 깨달은 님께서 훌륭하게 가르치신 말씀,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제거한 말씀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님께 절 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청원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대광사 11월 법회 및 행사

- ◆ 11월 1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오후1시 대웅전
 - ◆ 11월 8일 : 음력10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30분 설법전
 - ◆ 11월 10일 : 초하루기도 회향
 - ◆ 11월 13일 : 수능대박기원 석굴암 참배 오후2시 진해역 출발
 - ◆ 11월 14일 : 수능백일기도 회향
 - ◆ 11월 22일 : 음력10월 보름법회 오전 10시30분 설법전
 - ◆ 11월 29일 : 천일기도 회향 오전10시30분 대웅전
 - ◆ 11월 30일 : 천일기도 입재 오전 10시30분 대웅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천일기도 회향 및 입재

- 회향 : 2018년 11월29일(목)
- 입재 : 2018년 11월30일(금)
- 동참금: 가구당 100만원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 545-9595



태백동 금식소 후원금 현황입니다.

(9. 20~10. 24))

홍승운 20,000	황두관 20,000	쭈카텍 300,000	원광한의원 100,000
박미애 10,000	우명희 20,000	홍예현 50,000	조성부 100,000
010-2595-3674 30,000		법안성 30,000	허점사 10,000
유봉악 10,000	변동일 10,000	최진환 10,000	찬불단 50,000
윤숙희 10,000	정진이 10,000	진성화 30,000	서경스님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지원금(9. 20~10. 24)

하형규 20,000	강란 20,000	유미란 50,000	후원회 100,000
김인복 30,000	홍예현 10,000	금강지 10,000	법연화 10,000
서경스님 100,000			

♥ 초하루기도 공양

안중부 100,000

참여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11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2019학년도 신입생 원아모집 안내

- 유치원 교육설명회
: 2018년 11월 1일, 1차 오전 10시30분, 2차 오후 4시30분
- 원아추첨 및 접수
: 2018년 11월 2일, 오전 10시 30분 유치원 운동장
- ★ 추첨자 접수는 2일 당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유아체력다지기 대회

- 일시 : 2018년 11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유치원 운동장
- 7세-줄넘기, 6세-홀라후프, 5세-장애물 달리기

11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야외법회

- 일시 : 2018년 11월 17일





佛紀 2563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8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살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19. 2. 26 ~ 3. 20	2019. 3. 26(화)~12. 3(화)
수 계 일	2019년 3월 24일	(1년 과정 - 2학기제)

- ▶교육일시 : 신도기본교육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불교대학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접수기간 : 2018년 10월 1일부터 ~ 2019년 2월 말까지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신청 준비물 : 사진3장, 신청서 작성, 신도기본교육비 5만원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 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 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